

讀者文化 고찰을 통한 韓·中 木蘭 형상 담론

- 조선후기 『鄭木蘭傳』과 淸 후기 『北魏奇史閨孝烈傳』 『忠孝勇烈奇女傳』을
중심으로

이영숙*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韓國의 英雄小說과 批判적 讀者 文化
3. 中國의 通俗小說과 妥協적 讀者 文化
4. 韓國의 『鄭木蘭傳』 : 英雄화된 孝女
5. 中國의 『北魏奇史閨孝烈傳』 『忠孝勇烈奇女傳』 :
才子佳人和 脫俗的 女俠
6.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문학에 있어 독자의 힘과 역량은 지대하다. 그것은 문학의 존재 이유가 읽히고 소비되는데 있으며, 작품은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동일한 그리고 동시적인 사건이다'라 규정했듯, 작품은 읽히는 대상이 존재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문학이 생성해온 이래 텍스트 자체나 작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비하면, 독자의 기여도나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이 특별한 소수계층의 전유물이거나 위정자들의 교화와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고대 문학의 수용계층이 문화 권력을 독점하며 오랜 세월

** 서강대 박사 후 연구원

독자층을 구성해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중세 이후 독자층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성장·확대되었다. 독자가 문화적 소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과 취향의 체계,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가진 개인으로 확대된 이후, 독서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행위가 되었다.¹⁾ 그러므로 문학연구에 있어 독자층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기호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계연구는 문학 텍스트의 형성과 변용 고찰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층의 변화와 확대에는 정치·사회·문화적 변화와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념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나 이념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같은 문화권인 동아시아 내에서도 독자층의 형성과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특히 조선후기와 淸 후기 목란 이야기라는 하나의 텍스트가 각각의 주제와 인물 형상을 변용시켜 수용되는 점에 주목, 독자의 문화적 대응 양상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텍스트는 조선후기의 『鄭木蘭傳』과 淸 후기의 『北魏奇史閨孝烈傳』·『忠孝勇烈奇女傳』이다.

서구 열강의 침입과 기존 사회질서 및 가치체계가 붕괴하고 새로운 이념과 사고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던 사회문화적 변동기에 한중 양국에서 목란 이야기는 동일 텍스트가 어떻게 수용되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양국의 사회문화적 경향과 민족성이 양국 독자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2. 韓國의 英雄小說과 批判적 讀者文化

한국에서 자발적 독자층이 형성되고 비판적 독자 문화가 형성되게 된 몇 차례의

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46쪽 참조.

역사적 계기 및 사회적 변화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변화의 기점을 국문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1446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이다. 이는 한글 창제 이후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해진 평민과 여성들이 독자층으로 흡수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평민문학과 여성문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과 평민까지 흡수한 독자층의 확대는 한글 문학의 창작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번역서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문학 작품은 대체로 소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유입된 중국 演義소설의 주요 독자층이 평민계급과 여성 독자들이었다는 점은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있다. 즉 엘리트 남성 중심이던 문학 독자 계층이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된 것은 향후 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17세기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이는 문화적이고 내부적인 변화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질서와 가치체계가 붕괴되면서 야기된 민중들의 의식체계 변화는, 문화와 문학의 대중화를 형성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작가들이 문학이 위정자들이나 소수 계층들만이 아닌 일반 대중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들 대중 독자들이 사회문화의 주류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잦은 교류로 중국 통속소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문학이 상업화되어 세책업 등의 신종 직업이 생성되는 등 대중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경제 형성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현존하는 300여 편의 한국고대소설 중 2/3가 중국 배경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중국소설의 한국소설에의 영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²⁾ 明代 姜紹書은 『韻石齋筆談』에서 「朝鮮人好讀書」라는 글을 통해³⁾ 조선사신이 올 때마다 구입해 가는 수많은 중국 서적들과 구입에 대한 집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조선

2) 閔寬東,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流入時期와 過程 및 版本에 대한 考察」 『中國小說論叢』 第3輯, 1994, 275-302쪽 참조.

3) “朝鮮國人最好書, 凡使臣之來限五六十人, 或舊傳或新書或稗官小說, 在彼所缺者, 日市中各寫書目, 逢人遍問, 不惜重直購回。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明) 姜紹書, 『韻石齋筆談』 卷上, 「朝鮮人好讀書」收入於新文豐出版社編, 『叢書集成新編』 50, 台北, 新文豐 1985, 390쪽.

사람들의 중국서적 애독 현상과 파급력을 반영해주고 있다.

한글 보급으로 인한 문자의 용이성과 역사적 변혁으로 인한 의식체계의 변화들은 평민독자와 여성독자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문학 유포에도 흥미로운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남성의 타자로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독자층의 형성은 조선의 문학계에 불어 닥친 동아시아 기타 국가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여성독자는 엄연히 존재하였으나, 16세기 후반 중국소설이 유입된 이래 17세기 이를 번역한 국문소설이 등장하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문제까지 파급된 여성독자들의 소설 탐독은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위기감을 조성할 만큼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丁若鏞은 『與猶堂全書』에서 '부녀자가 이를 일삼으면 길잡히는 일을 끝내 폐지하는' '패관잡서는 人災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라며 소설열풍에 대한 염려를 적어 놓았는데, 이는 당시 여성독자의 소설 열기가 개인과 사회에 끼친 파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⁴⁾

조선후기 황실 도서관이던 樂善齋에도 꽤 많은 분량의 고소설이 소장되어 있었고, 李學逵가 『洛下生藁』에서 사대부 여성들이 언문번역소설읽기를 좋아한다고 기록한 글⁵⁾이나 趙泰億이 어머니가 책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되찾은 경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謙齋集』⁶⁾의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소설읽기열풍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朱子學 일변도로 여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봉건질서의 규율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고 서민문학은 고사하고 소설에 대해 배격 대상으로 엄격함을 고수했던 조선 전중기 시대와 비교하면, 조선후기 사회

4) 官雜書。是人災之大者也...子弟業此而罔籀經史之工。宰相業此而弁髦廟堂之事。婦女業此而織紅組紉之功遂廢矣。天地間災害。”(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詩文集第八卷 文集·文體策己酉十一月親試 a_281_176d」)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5) “今世綺紉婦女家，酷好諺編小說，焚膏繼晷，潛心暗讀。”(李學逵, 『洛下生藁』(日本, 天理大學圖書館, 因樹屋集, 37쪽))

6) “我慈闈既諺寫西周演義十數編 而其闕一筵秩 ...未幾有閭巷女從慈闈乞窺其書 慈闈即舉其秩而許之俄而 女又踵門而謝曰 借書謹還 但於途道上 逸一筵 求之不得 死罪死罪 慈闈姑容之... 婦適病且無聊 求書于同舍族婦 所族婦 迺副以一卷子 婦視之 即前所逸慈闈手書者也 要余視之余視果然”(趙泰億, 『諺書西周演義跋』 『謙齋集』卷42. 柳鐸一 編(1994), 위의 책, 101쪽에서 재인용)

문학계의 현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자 사대부 남성들 사이에서도 차츰 여성들의 소설탐독을 상당히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趙泰億(1675-1728)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국문소설을 빌려준 일화, 趙聖期(1638-1689)가 집안 여성들을 위해 『彰善感義錄』을 지었다는 설, 西浦 金萬重(1637-1692)이 어머니를 위해 『九雲夢』을 지었다는 설⁷⁾ 등은 소설에 대해 견고한 입장을 고수하던 엘리트 남성계급들도 여성들의 소설탐독을 인정하고 동참할 만큼의 여성독자의 보편화와 통속소설에 대해 꽤나 관대해진 사회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여성들의 소설 탐독 현상은 英祖 시기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 규방에서 능사로 삼아 다투는 것이 있는데, 곧 稗說을 숭상하는 것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부녀들이 식견이 없다보니 혹은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혹은 동전을 빗내어 서로 앞 다투어 책을 빌려와서는 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⁸⁾

諺文 翻譯小說에 빠져 읽기를 탐내서는 안 된다. 집안일을 방치해 두고 여자의 할일마저 게을리 하며 심지어 그것을 돈 주고 빌려다 읽고 이에 혹하여 집안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게다가 그 내용은 모두 투기하고 음란한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방탕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이로 인해 말미암고 있다.⁹⁾

諺文 翻譯小說에 열중하여 당시 '식견 없는 부녀자들'이 소설을 읽기 위해 패물을 팔거나 돈까지 꾸어가며 책을 빌리는 기이한 사태를 염려한 蔡濟恭(1720-1799) 과 李德懋(1741-1793) 글을 통해 알 수 있듯, 조선후기 여성독자

7) 소현, 「소설중독-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독자」 『中國文學』第53輯, 2007, 125쪽참조

8) “竊觀近世閨閣之競以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 婦女無識見,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貫來, 以求消永日”(蔡濟恭, 『樊巖先生文集』卷33 章4 「女四書序」: 『韓國文集叢刊』 236 수록,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75b)

9) “諺傳傳奇, 不可耽看. 廢置家務, 怠棄女紅, 至於與錢而貰之, 沈惑不已, 傾家產者有之. 且其說皆妬忌淫媒之事. 流宕放散. 或由於此.”(李德懋, 『靑莊館全書』中 「士小節, 婦儀1」, 401쪽)

의 폭발적인 증가와 소설 탐독 열기는 적잖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열광했던 텍스트는 무엇이였을까? 고대 사회에서 규방은 여성들에게 공적 사회와 단절된 삶을 강요하던 제한된 공간이지만, 여성들이 유일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녀들만의 공간이기도 하다.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던 규방에서 여성들은 소설을 읽으며 자신들을 소설 속 여주인공에 투영함으로써 자유와 성공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여성영웅소설에 열광했다. 규방을 벗어나 전장을 누비며 남성만의 공간이던 공적 공간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는 여성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영웅들은 전쟁참여를 통해 규방에서 전장으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항거함으로써 사회규율과 불합리에 도전하는 이데올로기적 혁명성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 서민과 여성들이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40여 편에 달하는 여성영웅 소설의 성행은 규방을 벗어나 천하를 호령하던 여성영웅 소설에 여성들이 더욱 빠져들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¹⁰⁾ 조선 후기 여성영웅 소재 소설들에 대한 애독현상은 조선시대 유교적 규범 아래 구속되어 억압받던 서민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각 현상을 반증하는 단적인 증거인 셈이다. 사대부 남성들은 兩亂을 겪으며 침예하게 드러난 중세 봉건질서의 모순에 염증을 느낀 여성과 평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가치관 변화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했다.¹¹⁾ 남성 전유의 영역에 진출하여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으로 공로를 세우며 기존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여성영웅담은 특히

10) 지금까지 한국에서 넓은 범주의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조선시대 작품은 40여 편이다. 조선시대 여성영웅소설은 중국의 『北宋志傳』 『薛仁貴傳』 『兒女英雄傳』 등에 영향을 받은 『朴氏傳』 『黃夫人傳』 『鄭木蘭傳』 『洪桂月傳』 『黃將軍傳』 『鄭秀貞傳』 『김희경전』 『이대봉전』 『옥주호연』 『이봉빈전』 『방한립전』 등이 있다.

11) 사회적 약자들은 전란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충격으로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 체계에 커다란 반발을 갖게 되고, 사회적 혼란의 여파로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평민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평민의식 성장이 서민문학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판소리의 발달이나 소설의 상업화와 대중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鄭明基, 「女豪傑系 小説의 形成科程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참조)

나 사대부 남성들의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 소설은 다양한 유형으로 탄생되고 재창조되면서 끊임없이 필사되고 유통되었다.

부친을 대신해 남장종군하여 공로를 세웠던 목란 이야기 역시 조선시대 여성영웅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목란이야기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전해졌는가?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英祖 때의 기록에 유난히 木蘭에 관한 언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들을 보자.

술을 많이 빚었다 하여 充軍시킨 경우가 各道에 두루 많구나. 많이 빚는 데 대한 율은 변방 유배면 가하지, 충군은 불가하다. 지금 백성들은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둘 수 없는데, 먼저 가르쳐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한다면, 아! 소민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여인이 충군된 것은 목란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¹²⁾

임금이 선비들을 시험보이는 시험장에 친림하였는데, 갑자기 擊鼓하며 억울함을 울부짖어 하소연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곧 秋曹로 하여금 供招를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대체로 여인이 거짓으로 男服을 꾸미고 호위한 가운데에 攔入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형조 판서 沈鏞가 공초를 받아 아뢰자, 하교하기를 “듣자하니 漢나라에서는 緹縈이 상소하였고, 唐나라에서는 목란이 從軍했다 했는데, 형제가 男服을 바꾸어 입고 殿庭에서 上言하였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아! 김 소사가 비록 아버를 위해 분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하나 그 城主를 배척하려 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남자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인으로서 능히 하였으니 이것은 가상하게 여길만하다...” 하였다.¹³⁾

첫 번째 글은 재위 기간 내내 금주령을 내렸던 英祖가 평민들의 술 제조에는

- 12) “況法當三令而五申, 以多釀充軍者遍各道, 多釀之律, 邊配則可, 而充軍則不可也。于今小民, 不能措手足, 而不先教導繩法爲快, 吁嗟! 小民焉能支乎? 況女人充軍, 木蘭之外, 曾無所聞。其雖誤書, 焉可無問備之飭也?”(『朝鮮王朝實錄』英祖 57권, 19년(1743 계해 / 淸 乾隆 8년) 3월 26일(庚辰) 10번째 기사)
- 13) “上親臨試士, 試所忽有擊鼓鳴冤者。上即令秋曹捧供, 蓋女人之詐裝男服, 攔入園中, 欲訟父冤。刑曹判書沈鏞捧供以奏, 教曰: “聞漢有緹縈上書, 唐有木蘭從軍, 而兄弟變着男服, 殿庭上言, 于今初聞 … 噫! 金召史雖爲父憤懣, 不欲斥其城主, 此男子之未易能也, 而以女人而能之, 此其可尙也。”(『朝鮮王朝實錄』英祖 117권, 47년(1771신묘), 10월 27일 3번째 기사)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법한 자를 充軍으로써 벌하자는 신하의 상소에 반대하는 답변을 기록한 것이다. 술 제조 금지령을 어긴 자라면 여인으로라도 군대에 충원을 해야 하는가 반문하면서 充軍된 여성의 예로 목란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기록에서는 과거 시험장의 남장 여인 난입사건에 목란이 언급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부친의 求命을 위해 시험장에 뛰어든 여인을 본 英祖의 언급이다. 英祖가 목숨을 걸고 부친 淳于意의 무고함을 文帝에게 호소했던 漢의 효녀 제영과 부친 대신 남장중군한 唐의 목란을 두고 남북 여인을 비교한 것은 '효행'이라는 제도권의 봉건예교 이념을 실천하는 상징적이고 이상적 인물로만 이들을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효행'이 이들 세 여인의 주요한 공통점으로 강조되기는 했으나, 英祖는 목란의 남장과 세 여인의 대범함, 공적 영역에 뛰어든 과격적 행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의 다음 기록을 보자.

전하여 이르길 대전과 속대전은 모두 가히 의거할 만한 법조항이 없다. 남자가 여복을 하는 것은 음침한 일에 속하니 법에 적용함에 있음이요, 옛 목란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傳曰, 大典及續大典, 俱無可據之律, 而男之換着, 其涉陰祕, 其有擬律, 此則比此有異, 而不應爲律, 亦不襯着若此, 古之木蘭, 亦用此律乎?)¹⁴⁾

윗글은 英祖 23년의 기록으로 여장을 한 자를 풍기 문란죄목으로 처벌한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목란이 남장한 것도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해야 할 것인가 되묻고 있다.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여장남자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肅宗 시대부터인데, 그즈음부터 소설에는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소재가 활용되곤 했는데, 『九雲夢』에서 양소유가 혼인 전에 고관대작의 딸을 훔쳐보기 위해 女服을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여장 남자에 대한 처벌여부에 관해 상세히 논의한 위의 기록을 보면 英祖 시대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성이 남복을 하는 등의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음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이미

14) 『承政院日記』 英祖 23년 12월 16일 (壬申) 원본1024책/탈초본56책 (11/18) 1747년 乾隆(清/高宗) 12년.

봉건위계질서의 붕괴와 脫예교적 풍기가 만연했음을 입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시 목란은 대중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의복을 환착한, 남장을 한 여인'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조선시대 후기 목란 형상은 첫째, 英祖 시대에 활발히 전파되었으며¹⁵⁾, 둘째, '효녀'가 여전히 목란의 주요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남장여인'으로서의 형상이 강조되었으며, 셋째, 목란이 '대범하고 용맹한 여성' '여군'과 격의 이미지로 전파되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목란의 활약과 미담이 '충효'라는 교화적 이미지를 넘어 '남장'·'용맹'이라는 장치가 부각되어 '남장 여성의 사회적 활약'이라는 명제로 유행하게 된 것은 17세기 이래 기존의 이념, 제도, 문화적 균형이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크게 요동치면서 새로운 문학 의식과 창작 및 유통의 바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독자층의 확대와 의식의 변화가 문화의 양적 질적 확산과 성장을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 성행하던 중국소설의 영향과 함께 경직된 유가사상에 대한 반작용 -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등을 통해 금기된 것에 대한 동경과 도전의식 -이 문학을 통해 반영되고, 사회 전반에 脫유가적, 脫예교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유교윤리인 '충효'로 포장을 함으로써 이들 주인공들이 벌이는 문화전복적인 행동이 정당성을 얻으면서도 여전히 그 이면에는 계몽적인 혁명성을 담고 있는 이중적 가치지향의 양상은 평민과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중세적 예법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탈피한 문화적 혁명이 문학을 통해 구현되어 비판적 독자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中國의 通俗小說과 妥協적 讀者文化

중국에서 소설장르에서 독자나 그 의미의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대개 宋·元에서 明初에 이르는 동안이다. 즉 六朝 및 唐代 소설관이 주로 문언소설의 흐름 속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시기 2번 承政院日記 英祖 편에 8번 목란 관련 언급이 되어 있다.

에서 제시된 것들이라면, 宋代의 '說話'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백화소설 형식이 등장하면서 '소설'이라는 말에는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면서부터 소설은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독자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宋代 이후 시민계층의 출현과 시민경제의 발전으로 민간 예술과 통속문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 여파로 '說話人'이 講唱할 때 쓰던 저본인 '話本소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 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문학 장르인 話本은 대중의 수요에 따라 쉽고 평이하게 쓰여 지고 보급된 것이 특징으로, 장·단편 백화소설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소설'은 민간 문학적 성격을 뚜렷이 갖게 된 것이다.¹⁶⁾ 이 같은 현상은 明代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었다. 明 葉盛(1420-1474)이 『水東日記』 21에 적은 다음 글은 소설 독자층의 확대를 증명해주고 있다.

책방의 이익을 다투는 자들은 그릇되게도 소설잡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농인, 공인, 상인 할 것 없이 그림을 베끼어 집에 가지고 있거나 사람마다 지니고 있었다. 어리석은 자나 걸출한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할 것 없이 지나치게 좋아하고 빠져드니, 호사가들은 이를 『여통감』으로 지칭하였다. (書坊相傳射利之徒, 僞爲小說雜書。... 農工商販抄寫繪畫, 家畜而人有之。癡駿女婦, 尤所酷好, 好事者因目爲『女通鑑』。) ¹⁷⁾

葉盛은 농공상인을 비롯하여 여자들까지도 소설에 매료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소설 독자의 폭발적 증가가 끼칠 사회풍기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소설을 '여통감'으로 간주한다는 대목은 소설에 대해 폄하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여성이 독자적인 계층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농공상인의 성장이 기존의 신분질서와 전통 관념을 위협하며 사대부들의 문화적 독점권을 넘보면서 일반 대중을 위한 문학의 俗化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明末 인쇄술의 보급으로 도서의 구입이 용이해짐으로써 筆寫 문화로 확보된 문학작품의 보급과 대중화 현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농공상인이나 평민들, 일반 백성을 목표 독자층으로 흡수하여 상업적 성과를 거두

16) 중국소설연구회, 『중국소설사의 이해』, 學古房, 2002, 7쪽 참조.

17) (明) 葉盛, 『水東日記』 第八, 上海古蹟出版社, 1992, 130쪽.

려는 출판업자들의 고도의 상술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독자층은 이전에 비해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은 계층으로까지 널리 확대되었다.¹⁸⁾ 이로써 소설은 明 嘉靖 이후 위로는 황실, 관리, 사대부로부터 학생, 백성, 여성,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독자층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¹⁹⁾ 따라서 소설 내용도 이전의 문아했던 경향에서 통속적이고 평이하게 그리고 오락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조건이 야기한 독자 계층의 확대 속에 여성독자는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적잖이 사회문제로도 확대되었다. 淸初의 『金瓶梅』 평점가인 張竹坡가 『金瓶梅』의 문체나 기교 또한 여인네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아녀자라면 마땅히 좌전이나 국어, 시경의 풍·아 등의 경전과 사서를 읽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독자를 경계²⁰⁾한 것 역시 통속소설 여성독자 증가가 야기할 사회문제를 염두에 둔 대표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은 주로 통속소설의 독자로서보다는 설창이나 탄사의 청중으로 존재했으며, 읽는 주체로서보다는 듣는 주체로서의 청중에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설, 특히 백화소설의 독자 계층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았다.²¹⁾ 그러나 여성은 엄연히 통속소설의 독자였으며, 여성들을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로서 등장시키는 작품들이 속속 나타나는 현상들은 소설의 잠재적 독자로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듯 明末부터 촉발된 독자층의 변화는 텍스트 소재와 주제, 내용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여성만을 소재로 삼은 독특한 작품도 등장하는데, 明 吳震元(長卿)의 文言短篇小說 『奇女子傳』이 그것이다. 陳繼儒(1588-1639)가 『奇女子

18) Ann E. MacLaren, 이지원 옮김, 「명말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 『중국소설연구회보』, 2008.9, 1쪽 참조.

19) 蔡亞平, 「讀者與明清通俗小說創作, 傳播的關係研究」, 暨南大學 博士論文, 2010.6, 2-3장.

20) “『金瓶梅』切不可令婦女看見。世有銷金帳底, 淺斟低唱之下, 念一回于妻妾聽者, 多多矣。…至于其文法筆法, 又非女子中所能學, 亦不必學。卽有精通書史者, 則當以『左』、『國』、〈風雅〉、經史與之讀也。”(David T. Roy 역, 『『금병매』장주과독법(Chang Chu-p'o on How to Read Chin P'ing Mei)』(David Rolston eds, How to Read the Chinese Nov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36쪽)

21) 최수경, 「淸 後期 女性들의 小說 수용에 관한 연구-題紅詩에서 《紅樓夢影》까지」 『中國小說論叢』 35집, 2011, 305쪽 참조.

傳』 서문에 이 책을 기존의 여성 사적들과 비교해 언급한 것을 보자.

부녀자들은 깊은 규중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산과 바다, 초야를 떠돌아 다닌 자가 비록 있다하더라도 들은 바가 없다. ...이 가운데는 특별히 절개가 뛰어난 자, 식견이 뛰어난 자, 지혜가 출중한 자, 술책이 뛰어난 자, 특별히 용감한 자, 힘이 남다른 자, 문학에 자질이 뛰어난 자, 감정이 기묘한 자, 의협이 강한 자, 기이한 버릇이 있는 자 등 여러 종류의 기이한 여인들이 있다. 작게는 손에 땀을 쥐고 입을 벌리게 하는 일부부터, 크게는 마음을 빼앗고 눈을 의심케 하는 일까지 다양하다. (獨婦人女子生長深閨之中。淪落於山陬海曲，村墟草莽間無限。雖有奇無聞。...其間有奇節者。奇識者。奇慧者。奇【括盡全部】謀者。奇膽者。奇力者。奇文學者。奇情者。奇俠者。奇癖者。種種諸類。小可以撫掌解頤，大可以奪心駭目。)22)

陳繼儒의 언급대로 『奇女子傳』은 오로지 여성들의 기이한 언사와 행적만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전형적인佳人이나 유가적 여성 형상을 탈피한 기이하고 특이한 여성들의 행적을 수록한 『奇女子傳』의 성행은 독자층의 다양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奇女子傳』에 언급된 木蘭과 謝小娥, 孟姬, 黃崇緄 등의 이야기는 남장여성의 사회진출을 다루고 있는데, 남장이러는 장치를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 독자들의 욕구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奇女子傳』에 수록된 목란 이야기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효녀'라는 교화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목란 이야기가 여주인공 목란의 성별과 실존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목란의 묘는 호주 북쪽 오십 리에 있으며, 묘에는 사당이 있고 사당에는 상이 있는데 여자의 형상이다. 세상에서는 목란이 여자인 관계로 이런 일은 없으며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의심한다. 옛사람들은 남자로 하여금 부역일을 관장케 하고 여자에게는 뽕나무 활과 쭉대 화살을 들고 사방에 뜻을 세우게 한다면 이 역시 장차 남자였다고 의심할 것이다. (木蘭墓在亳州

22) 蔡祝靑, 「明末清初小說中男女扮裝之性別與文化意義」, 南華大學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00, 83쪽에서 재인용.

北五十里，墓有廟，廟有像，像猶女子也。世以女子故，疑無有是事，并無是人。使古人以男子中饋，而命女子桑弧蓬矢以志四方，也將轉而疑男子云。）

작자는 목란의 代父從軍의 효성스런 행위 자체보다, 목란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 행적과 인물의 존재를 의심받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효'라는 유가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장치였던 남장은 『奇女子傳』에서 사회적 제약과 틀을 뛰어넘는 기이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謝小娥, 孟姬, 黃崇嘏의 남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明 焦竑(1541-1620)의 『焦氏筆乘』 「我朝兩木蘭」의 목란 역시 교화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수용되었다. 목란 이야기의 획기적 변화는 徐渭(1521~1593)의 「雌木蘭代父從軍」에 이르러 정점을 맞게 된다. '충효절의'의 상징이던 목란이 '致良知'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성해방과 인간평등을 주장하던 陽明學의 영향 아래, 兩性平等적 여성관과 인간의 본능·욕망을 인정하는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의 인간관을 대변하는 형상으로 재현된 것이다. '효'보다 강조된 여성 주체사상은 개방적 사회풍조와 맞물려 소재의 다양화와 독자의 다층화를 시사하고 있다.

남장여성 소재는 淸初 여우고사를 중심 소재로 삼은 『聊齋志異』 卷7의 「江城」, 卷10의 「顏氏」, 卷14의 「商三官」 등을 비롯하여 明末 淸初 수많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유가 관념으로는 용납할 수 없던 남장여성이나 여장남성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존재했음을 설명하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 욕망을 허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 소재 텍스트의 확산과 성행은 분명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성 독자의 확대 및 문화계 전반의 변동은 의미하기도 한다. 즉 상업의 융성·도시 발달·상업적 인쇄문화의 성행이 야기할 문화 향유 저변층의 확대와 새로운 구독층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이들 표적 독자들의 오락적 요구와 사회적 욕망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00년 『紅樓夢』의 등장은 이러한 독자문화, 특히 여성독자의 확산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대의 문화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紅樓夢』 열풍은 19세기 이후 상업적 인쇄문화와 맞물려, 책읽기를 넘어 '題紅詩'의 창작 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이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 편집자로서 소설 생산이나 창작, 출판에 직접

참여하며 일종의 ‘여성문화’ 및 ‘여성공동체’라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²³⁾ 흥미로운 점은 17세기 이후 중국 강남을 중심으로 인쇄문화를 발판으로 등장한 여성작가가 같은 시기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나 작품성으로나 월등하였다는 점이다. 書房과 출판업계에서는 남성 작가나 편집자의 작업을 뛰어넘는 탁월한 작품성과 오락성을 가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앞 다투어 출판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들 여성작가의 작품들이 가진 상업적 잠재력에 주목한 것이며, 그 표적독자를 여성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엘리트 남성까지도 함께 겨냥했음을 의미한다.²⁴⁾ 또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거나 여성영웅소설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감성과 이데올로기가 여성 취향으로만 편중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국의 여성영웅소설이 대부분 남장 여성의 사회적 성취 등 사회문화적 의의를 시사하는데 반해, 중국 여성영웅소설은 여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개인의 복수나 보은 등 개인적 지향에 근원을 두고 있다.²⁵⁾ 중국 영웅소설의 이러한 경향은 분명, 비슷한 시기 여성독자 취향에 편승하여 전파된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 대부분이 전통체제 안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의식과 욕망을 대변했던 것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晚淸 시기 목란 소재의 통속문학 작품은 다양한 장르에서 역사영웅, 전기적 영웅, 佳人, 여성협객 등으로 새롭게 재현되었다. 그중 문학적 완성도와 대중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작품으로 『隋唐演義』·『雙兔記』·『北魏奇史閨孝烈傳』·『忠孝勇烈奇女傳』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작품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다.

작품명	작가	창작시기	성격
『隋唐演義』	楮人穫	康熙 (1695)	歷史演義
『雙兔記』	永恩	乾隆 (1751)	傳奇雜劇

23) 최수경, 상기 논문 313-314쪽에 여성의 소설 창작 및 생산 참여사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참조바람.

24) 박소현, 「소설중독-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독자」 『中國文學』 第53輯, 128-130쪽 참조.

25) 송희, 「한·중 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경희대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논문, 2014, 91-92쪽.

『北魏奇史閻孝烈傳』	張紹賢	道光 30년(1850)	才子佳人
『忠孝勇烈奇女傳』	미상	光緒4년(1878)	俠義英雄

이중 『隋唐演義』는 隋末唐初 170여 년간의 전쟁과 정치적 암투를 배경으로 역사속의 여성영웅으로 목란을 등장시키고 있다. 『雙兔記』²⁶⁾는 雜劇으로 徐渭의 『雌木蘭代父從軍』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자유연애·혼인의 자유를 제시하는 才子佳人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北魏奇史閻孝烈傳』²⁷⁾에서 목란은 ‘영웅’의 이미지 보다는 ‘才子佳人소설’의 전형적인 여주인공 佳人으로 재현되었다. 『忠孝勇烈奇女傳』은 종교성이 강한 작품으로 傳奇的이고 道教的인 내용으로 목란이 협녀로 등장하는 협의소설이다.

이들 작품들은 시·산문·비문·지방지·문학비평서 등 정통 사대문 문학의 목란 형상과 목란 형상 및 주제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조선시대 수용·전파된 목란 형상과 주제와도 맥을 달리 하고 있다. 그것은 한글 창제와 任·丙 兩의 외부적 여건에 의해 문학내부의 변화가 유발되었던 조선 후기 독자문화와 비교했을 때, 明末부터 상업의 발달과 인쇄술의 발달이 양산한 문학의 俗化와 독자층의 확대라는 문학계 자체의 진화가 선행되었던 청 후기 문학계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韓國의 『鄭木蘭傳』: 英雄화된 孝女

상술했듯 조선시대 목란은 남장·여군·용맹한 여성의 이미지로 전파되었다. 물론 ‘효녀’의 형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목란의 효성보다 더욱 부각된 것은 ‘남장’이라는 脫제도권적 행위와 ‘여성의 참전’이라는 문화적 충격, ‘남성보다 용맹한 여성’

26) 李修生, 『古本戲曲劇目提要』, 北京, 文化藝術出版, 1997, 554-555쪽.

27) 張紹賢, 『北魏奇史閻孝烈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張紹賢, 『北魏奇史閻孝烈傳』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강소성사회과학원편, 울산대학출판부, 1997.9.

이러는 이데올로기적 역접이었다. '효행'이라는 목란의 교화적 효용보다는 오히려 혁명성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을 부각시킨 수용형태는 특히 여성독자들의 애독서인 여성영웅소설에 투영되어 나타나 있다. 『김희경전』에 언급된 목란 관련 대목을 보자.

석일(昔日)에 목란(木蘭)이 절벽에 송구하였으되, 오히려 죽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목란의 일을 효칙하여 의복을 환착하고 일필단기로 북해로 향하면 뉘 능히 여화위남한 줄을 알리오. 내 뜻을 이미 정하였나니, 너희는 괴로이 막지 말라.

『김희경전』에서 주인공 희경은 여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남장종군을 결심하면서 자신의 남장이 바로 목란을 따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희경은 목란을 '효녀'가 아닌, 의복을 환착한 '남장 여성'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소설을 애독한 수많은 독자들의 보편적 인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鄭木蘭傳』은 樂府「木蘭詩」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목란의 이름과 남장종군 모티프까지 사용하였지만, 조선시대 여성영웅소설에 부합하는 이야기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작품은 1916년 유일서관에서 국문활자본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필사본으로 널리 유통되었으니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미 여러 형태로 수용되어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효현은 中國 樂府「木蘭詩」의 연원을 언급하면서 “『鄭木蘭傳』은 이러한 목란의 고사를 소재로 취하여 조선후기에 많이 나타난 여성영웅소설의 한 작품으로 새롭게 창작된 것이다”²⁸⁾라 하여 조선후기 이미 목란 이야기가 전파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 12章回로 구성된 『鄭木蘭傳』의 모티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8) 張孝鉉은 金台俊이 『朝鮮小說史』(學藝社, 1937)에서 『鄭木蘭傳』이 1910년 활자본 소설이 성행할 때 새롭게 지어진 소설이며 유일서관의 社主 남궁준의 작품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작품이 조선후기에 나타난 『정수정전』 『홍계월전』 등 여성영웅소설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황제의 이름이나 五關의 명칭 등이 혼동되어 사용된 것은 이전의 필사본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필사본이 이전부터 상당히 유통되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張孝鉉, 「애국계몽기 창작 고전소설의 한 양상」 『정신문화연구』 4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49-150쪽)

‘징병 - 목란의 납장 - 대부종군 - 승전 - 여성성 회귀’라는 기존 樂府 「木蘭詩」의 주요 모티프와 ‘출생 - 정혼 - 연적관계 - 부패관료 척결 - 관직사회진출 - 결혼-출산’ 등 허구적 모티프의 삽입이다.

즉 목란 고사에서 대부종군과 납장의 모티프만을 차용하고 그 외의 줄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용되어 창작되었다. 목란의 비범한 탄생, 정혼자 김경의 등장, 적국인 원왕의 신임, 가사도와의 대립구도 등 수많은 등장인물과의 갈등을 삽입하여 소설적 요소를 배가시켰는데, 이는 또한 『鄭木蘭傳』이 여성독자와 평민을 겨냥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국난을 평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영웅 목란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출생담이다. 운명적 출생담은 한국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상용하는 필수조건이다. 천상의 선녀가 득죄하여 인간의 여인으로 탄생했다는 『홍계월전』의 계월, 천상의 신선이던 방관주가 득죄하여 여성으로 성 정체성이 뒤바뀌어 태어났다는 『방한림전』의 방관주의 탄생이 그러하다.²⁹⁾ 이들 여성영웅들이 실은 천상계의 혈통을 지녔으나 죄를 지어 지상의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설정은 탄생 자체가 죄로 간주되어 환영받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방에 갇혀 고단하고 단절된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 ‘득죄한 천상의 신분’이란 출신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 선관이 월궁항아가 적강하게 됨을 알리는 꿈을 꾸 뒤 부인이 잉태하여 열 달 만에 딸을 낳는다’는 『鄭木蘭傳』 목란의 탄생 역시 이러한 계보를 따르고 있다.

둘째, 정혼자 김경의 등장이다.

같은 때 동군 땅에 명문거족의 후예로서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여 사는 김현 역시 나이 마흔에 자식이 없었는데, 한 선관이 천상의 두성이 월궁항아에게 죄지어 적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꿈을 꾸 뒤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경, 자는 현이라고 짓는다.

29) 김홍영, 「한·중 여성영웅소설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1.

『鄭木蘭傳』은 효녀 목란에게 연애와 혼인 이야기를 설정함으로써 독자의 연애 수요를 충족시켰다. 천생연분의 배필, 선남선녀의 만남은 중국의 염정소설이나才子佳人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목으로 중국소설의 영향도 보이고 있다. 김경과의 인연과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곡진한 사연, 혼인하여 삼자일녀를 낳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과정들은 다소 작위적이긴 하나, 수동적으로 일관하던 여성들 삶의 전형성에 연애와 혼인에 대한 여성의 의지와 욕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욕구의 좌절과 성취 등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가부장적 혼인조건을 벗어나 운명의 천생배필을 그리는 여성들의 열망이 문학적 과정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목란의 사회적 성취와 진출이다. 목란은 스스로 남장을 선택하고 출정하는데, 이는 '효'에의 의무 때문에 男裝代父從軍했던 전통적 목란 형상과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전장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며 활동반경을 국외로 확대하면서 활발한 전투를 벌이고 元王과의 성공적 외교적 협상을 통해 진국장군을 제수 받고 귀향하는 모습은 여성의 성역할에 새로운 재고의 여지를 제공한다. 즉 목란은 남장이라는 외부적 장치를 통해 지략과 능력이라는 내부적 능력 발휘의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남성의 독점이던 정치·외교 영역에 진입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으로 회귀하고도 장수의 신분으로 출정한 목란의 원군 격되거나 목란의 정적인 동군 태수 가사도 처제의 등장은 금녀의 공간이던 관료사회에 여성이 진출하여 활약하는 내용으로 여성들의 出世에의 잠재욕구를 문학적 공간을 통해 해소시키고 있다.

넷째, 관료사회에 대한 묘사와 비판이다. 목란이 승전 후 금의환향하기 위해 김정관·동령관·천마성·벽마관·판사관의 오관을 거치는 동안 그녀에게 가해진 성주들의 방해와 음모는 남성 중심의 봉건질서와 부도덕한 관료사회에의 경고와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목란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어사태부 가사도의 음모 역시 졸렬한 남성권력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즉 관료사회와 남성권력자들의 비리와 음모 폭로를 통해 평민과 여성들의 불신과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투 내용에 대한 다소 빈약한 묘사 역시 작품이 여성 독자를 겨냥하여 구성되었음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수렴하자면 『鄭木蘭傳』은 소설적 장치와 계몽적 장치, 윤리적 장치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생 - 정혼 - 연적관계 - 내부 갈등 - 결혼 - 출산' 등이 독자들을 흥미유발을 위한 소설적 장치라면, '자발적 출전 - 부패관료 척결 - 관직사회진출' 등 계몽적 장치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암시를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효'라는 윤리적 주제는 소설적 장치와 계몽적 장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독자의 강렬한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이렇듯 중세적 규범과 봉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孝'의 상징이던 목란 형상이 조선시대 후기 여성영웅 소설 『鄭木蘭傳』에서 전통 질서와 이념에 도전하는 혁신적 형상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은 잠재적 독자로서의 평민과 여성이 주도적 독자문화를 형성하며 조선시대 후기 문화의 대중화와 실용적 확산 및 질적 성장을 촉진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예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판적 독자문화 형성의 한 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한글 보급과 脫봉건적 관념의 형성으로 독자적인 주류 문화권으로 진입한 여성과 서민 독자층이 원작의 주인공 형상과 주제까지 변용시킬 정도로 강력한 문화 권력층을 형성한 것이다. 유럽의 사회학자 아널드 하우저는 "통속예술의 목적은 위로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고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라 했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鄭木蘭傳』의 목란은 전통적 가부장제와 봉건주의적 사고방식과 체제의 틀에서 차별받고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희망과 자유를 선사하는 계몽의 텍스트로 새롭게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中國의 『北魏奇史閨孝烈傳』·『忠孝勇烈奇女傳』: 才子佳人和 脫俗的 女俠

清代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소설 장르에서 목란 이야기는 다양하게 활용되었

30) 『藝術社會學』, 學林出版社, 1987, 233쪽.

다. 그중 『北魏奇史閩孝烈傳』³¹⁾는 道光 30년(1850)년 藏德堂에서 간행된 12권 46회의 소설로 徐渭의 『雌木蘭』을 저본으로 삼았다.

작품은 '징병 - 목란의 남장 - 대부중군 - 승전 - 여성성 회귀'의 기본 플롯에 '정혼 - 출정 - 내부 갈등 - 우정 - 음모 - 정절 - 결혼 - 부귀영화 - 처첩관계 형성'이라는 모티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기본 플롯보다는 후자에 치중하면서 전형적인 '재자가인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다.

먼저 목란은 아버지를 대신해 출전하여 공로를 세우는 영웅의 이미지보다는 아름다운 용모와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미모의 여주인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盧玩花공주가 화목란 아가씨를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니, 과연 곱디고운 절세가인이라,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盧玩花公主...對花木蘭小姐晴認真再看, 果然是一個絕色紅粉佳人, 整整齊齊)(第二十回)

지극히 충성스러운 뿐만 아니라 지극히 효성스럽고 또 훌륭하게 도덕을 지켜 정절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自古 이래로 이러한 자 없었도다(不但全忠而且全孝。又兼善能保全一身貞節而回, 自古及今未有其人。)(四十五回)

목란은 '영웅'적 면모보다는 '연모-정절-혼인'으로 이어지는 남성의 배필로서의 여성, 순종적이고 전통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혼인대사는 부모에게 반드시 아뢰어 여쭙어야 한다(婚姻大事必須稟告父母)'·'삼종사덕이니 시집가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三從四德, 嫁夫從夫)'는 목란의 대사는 봉건질서의 이상에 부합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원작에 없던 늙름하고 문무를 겸비한 정혼자 王靑雲의 등장으로 목란의佳人적 형상은 더욱 부각되었다. 진두지휘하며 전장의 영웅이던 목란이 정혼자 王靑雲의 등장에 부끄러워 숨는다거나, 오랜 전투로 쇠약해진 목란에 대한 묘사는 목란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승전의 주역을 목란

31) 張紹賢, 『北魏奇史閩孝烈傳』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강소성사회과학원편, 울산대학출판부, 1997.9.

張紹賢, 『北魏奇史閩孝烈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이 아닌 정혼자 王靑雲의 공로로 돌리는 소설 장치는 王靑雲이 ‘빼어난 재주와 용모를 갖춘(才貌雙全)’ 才子로서 오히려 목란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한다. 이에 비해 목란은 활동 범위와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결국은 才子와의 결혼을 통해 행복을 얻는 전형적인 佳人의 형상을 따르고 있다.

셋째, 적장의 공주 盧玩花와 代父從軍의 기개를 보였던 목란과의 우정이 王靑雲의 처첩관계로 완성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간의 우정이 결국은 ‘一夫多妻’의 구습에 흡수되는 여성의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戰後 才子 王靑雲은 盧玩花의 두 시녀까지 첩으로 거두어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며 문장을 지으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대부 남성들의 이상향이자 才子佳人小說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³²⁾

목란은 제목에서처럼 활동공간이 ‘규방(閨)’에 제한되어 있으며, ‘孝와烈’이라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통제 받고 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가치관으로 ‘봉건예교’ 최고의 ‘이상적 여성’으로 재현되어 전통사회 ‘딸·아내·어머니’의 역할로 회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그러기에 이 작품이 엘리트 남성 독자만을 겨냥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盧玩花와 목란은 그녀들이 속한 사회규범의 안에서 무예와 재주를 통해 자신의 길과 배우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으며, 가부장적 질서라는 포장 아래 자유연애와 혼인이라는 脫예교적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당시 사대부 계층의 생활방식과 효도·혼인 등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엘리트 남성들의 소망과 환상뿐만 아니라, 일탈과 자유연애를 꿈꾸는 사대부 여성들의 욕망과 환상도 투영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권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또 유교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이중의 심리를 가진 대다수의 엘리트 남성과 사대부가 여성이 이 작품의

32) 『清代才子佳人小說研究』(최수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06-209쪽)에서는 才子佳人小說 60편 중 39편이 일부다처제로 끝난다고 분류했다. 『玉嬌梨』·『飛花艷想』 등에서 才子들은 사회적 승인과 상대 여성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떳떳하게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남성들의 複婚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두 명 이상의 여인들과 결합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비춰지지만 실상 한 여성에게만 節義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佳人들중 누구도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才子를 비판하거나 질투하는 이가 없다.

독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인쇄술의 성행으로 출판업이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소수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의 한계가 한글보급을 통한 광대한 조선후기 독자의 확대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므로 『北魏奇史閨孝烈傳』은 清代 후기 통속소설의 상업성과 당시 독자의 성향 및 가치관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는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清 후기 목란 소재의 또 다른 작품은 光緒 4年(1878)에 간행된 작자 미상의 四卷 三十二回의 『忠孝勇烈奇女傳』³³⁾으로, 序文은 修慶氏가, 跋文은 周匯淙이 썼다고 전한다. 『忠孝勇烈奇女傳』을 주목할 이유는 전통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의 과정을 거쳐 清代에 꽃 피운 재자가인이나 역사영웅·염정소설 등 여타 소설과는 달리 清代에 들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영역의 협의소설이라는 점이다. 또 불교와 도교의 환상성과 백련교라는 종교성이 융합한 바탕 위에 ‘남장여성협객’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문인 무협소설이 脫경전화를 지향하여 老莊과 불교의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상층 문인들의 새로운 상층문화 메커니즘이라면, 백화 무협소설은 민간예인과 재야 문인들의 동업성 창작단체인 ‘書會’를 중심으로 일반대중의 수요에 맞추어 탄생한 시민사회 대중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魯迅이 “협의소설은 清代에 宋代 話本의 맥락을 직접 계승하였으므로 평민문학이 7백여 년을 지나 다시 흥기하게 되었다.”³⁵⁾고 설명했듯, 협의소설은 문인화 경향의 재자가인소설이나 연의류 소설과는 달리 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³⁶⁾

33) 『木蘭奇女傳』·『忠孝勇烈木蘭傳』·『女子英雄傳』 혹은 『木蘭奇傳』이라고도 한다.

34) 陳山 著·姜鳳求 譯, 『中國武俠史』, 東文選, 2000, 292쪽, 303-304쪽 참조.

35) 是俠義小說之在清, 正接宋人話本正脈, 固平民文學之歷七百年而再興者也. (『魯迅全集』 第9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278쪽).

36) 魯迅 이후 소설의 한 유파로 분류된 협의소설은 의협심이 강한 협객이 등장하여 세상의 불의를 처단하고 민중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清代에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 향유의 욕구가 증대한 일반 민중을 위한 희곡, 소설 등 통속문학이 발전하면서, 영웅고사와 講史류의 고사를 좋아하는 일반 민중의 감상에 호응하여 ‘협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희곡과 소설 분야에서 양적을 질적으로 크게 성행하였다(魯迅 著·趙寬熙 譯註, 『清的 俠義小說 및 公案』 『中國小說史略』, 서울: 살림, 1998, 631-655쪽 참조).

『忠孝勇烈奇女傳』³⁷⁾은 淸 嘉慶년간 10년에 걸친 白蓮敎의 반란 이후 淸代 사회에 만연한 민간신앙의 영향과 민간에 뿌리를 둔 협의정신이 구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목란 이야기는 ‘종교성’과 ‘협의’를 덧입은 후, ‘남장’ ‘출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즉 唐宋 이래 비밀종교결사로서 민간에 깊이 뿌리내려 전해져 온 백련교를 중심으로 목란의 ‘남장대부종군’은 ‘수련-연마-복수-眞空家鄉’의 귀의라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먼저 목란의 남장이 그러하다. 목란은 10살이 되기 전부터 男裝을 하고 무예를 연마하게 되는데, 이는 효의 실천을 위해 남장을 했던 기존의 목란과 출발이 다르다. 중국사회에서 전통시대 여성의 역할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봉건질서의 규범 아래 활동영역이 규방과 가정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었었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억압된 환경으로 인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불리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남성성에 대한 동경을 종교에 기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불교경전 『藥師經』³⁸⁾의 다음 내용을 보자.

만약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여인이 있어 여인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원하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일체가 모두 여자를 변하여 남자가 되게 하고 장부의 相을 갖추어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상의 보리를 증득할 것을 원한다.³⁹⁾

‘다음세상에서는 갖가지 번뇌의 근원인 여성의 몸이 아닌 강건하고 안정된 남성의 몸으로 변하여 태어나 안락을 누리길 바란다’는 내용은 남성으로 태어나 정당한 삶을 누리고픈 기원을 종교에 기탁한 세속의 경향을 대변한다. 목란의 남장에 대한 종교적 이해는 淸代 雜劇 『双兔記』에도 세 차례나 관음 현신이 금강으로 변

37) 佚名, 『忠孝勇烈奇女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38) 藥師琉璃光如來의 誓願과 功德을 해설한 經典. 東晉의 여시이밀다라의 번역인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1권, 수의 달마굽다의 번역인 『佛說藥師如來本願經』 1권, 唐의 玄奘 번역인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2권 등이 있음.

39) ‘願我來世, 得菩提時, 若有女人, 爲女百惡之所逼惱, 極生厭離, 願捨女身; 聞我名已, 一切皆得轉女成男, 具丈夫相, 乃至證得無上菩提.’(唐)三藏法師玄奘, 『藥師經旁解』 『藥師佛契應現代人所發的十二大願』, 15쪽)

하는 광경을 통해서도 포착할 수 있다. 관음은 대체로 관세음보살이 인간으로 화하여 현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여인이나 노파로 화하여 중생의 고뇌, 환란 등을 구제하였다. 즉 목란의 남장을 관음이 현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관이 뚜렷한 유교와 달리 道敎에서는 丹을 이루기 위한 비유이긴 하지만 남녀의 조화와 남성의 모체화라는 '坎離交媾·男兒懷妊'의 교리를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⁴⁰⁾ 10세부터 음양조화를 통한 궁극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 수련법을 익히기 시작한 목란의 남장이 종교적으로 이해되는 이유이다.

무술수련 역시 종교적으로 이해된다. 목란은 조부 朱若虛의 주선으로 喪桴님과 鐵冠道人으로부터 儒·佛·道 三敎의 宗旨를 배우고 무예를 연마한다. 백련교도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無生老母'가 미륵을 통해 자신의 흠어진 자녀인 신도들을 眞空家鄉이라는 천국에 귀의시킬 것이라 선전했다. 그리고 이생에서 고난과 수련을 통해 새 왕국을 대비한다는 의미로서 무술 연마를 권장하였다. 목란은 만주족 지배에 저항하는 백련교도로 등장하여 수련의 과정으로 무술을 연마한다.

내용과 주제 또한 '無生父母·淨土家鄉'의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목란은 불경과 도교서적을 즐겨 읽어 그 묘수에 통달했으니 삼교의 종지와 마음으로 전하는 묘법을 모두 알았다.(他又喜看佛經道典, 深通其妙, 所以三敎宗旨, 心傳妙法, 一一皆知。)

무생부모 정도가향이라. 내가 있되 없고, 내세움도 물러남도 헛되도다. 돌아갈 길을 알았으니 방향하지 말지어다.(無生父母, 淨土家鄉。生我沒我, 空作昂藏。認取歸路兮, 莫旁徨。)

無生父母는 明末부터 민간종교로 대두되었던 無生老母 신앙에서 속세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無生老母·阿彌陀佛과 병용되는 숭배대상이며, 淨土家鄉은 無生父母가 데려간다는 구원의 세계인 眞空家鄉을 지칭한다. 즉 우주

40) 임채우, 「도교의 페미니즘적 성격-도교 신화와 연단술에서의 여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韓國道敎文化』 20집, 2004.

조화의 인격신 無生父母에게 귀의하여 생명의 自性을 향해 본래면목을 탐구한다는 天人合一의 정신을 표방한 儒·佛·道 三教合一思想이 바로 이 작품이 지향점인 것이다. 사대부와 승려, 도사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로 전과되어 明·清 兩代를 걸쳐 종교화된 ‘無生父母(老母)·淨土家鄉’ 정신은 민중들의 보편적 신앙으로 추앙되고 있었으며, 『忠孝勇烈奇女傳』이 역시 그 영향으로 탄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武昭將軍을 하사받은 목란이 武則天과 同姓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망칠 요물로 몰리자 홍복자살로서 결백을 증명하는 결말 역시 종교성과 혐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목란은 이전 통속작품들이 ‘男裝 - 代父從軍 - 立功 - 여성 회귀 - 혼인’이라는 기존 질서로의 복귀를 통해 대중들이 원하는 현실적 욕망을 반영하여 결말에 이르렀던 것과 달리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있다. 이로써 현실세계의 행복과 이상향을 넘은 협녀의 비장함과 종교적 귀의를 통해 생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란의 초월적 영웅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清代 후기 통속소설에서 목란은 여성, 일반 대중, 종교인, 예술가 등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여 형상과 주제를 다양화시켜 재현되었다. 한글과 한자라는 문자 해독력의 차이로 인해 특정층만이 읽고 쓰는 것이 가능했던 중국 통속소설에서 가부장적 색채가 한국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봉건예교의 가치가 절정이던 清代에 개인으로서의 독자들은 봉건예교라는 사회규범과 타협하며, 독서 활동을 통해 자유연애와 혼인, 복수와 득도라는 개인적 갈등과 욕망을 해소하면서 타협적 독자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6. 나오는 말

조선후기와 淸 후기 한국과 중국의 통속소설에서 재현된 목란이야기는 각 사회 문화전반의 분위기와 독서 반응양상을 내포하며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연계성 및 독자와의 관계를 규명해주는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한국과

중국 사회의 문화적 변동과 독자층의 확대로 인해 목란이야기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란 형상과 내재적 상징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재현되었다.

전통적으로 '孝'라는 제도권적 이데올로기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도구였던 '男裝'은, 조선후기의 문학작품에서 오히려 전통 이데올로기의 전복을 위한 사회적 탈출도구의 과정을 거쳐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소설의 주 독자 계층인 여성들이 사회제반의 역할과 인간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孝'라는 절대적 전통적 도덕가치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심청'이 윤리적 주제에의 강렬한 공감을 바탕으로 독자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⁴¹⁾ 목란은 '용맹한 남장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독자적 노선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清代 후기 목란 이야기는 '역사 속 영웅(隋唐演義)·'자유연애와 애정을 추구하는佳人'(『双兔記』)·'정절을 지키는 영웅형佳人'(『北魏奇史閨孝烈傳』)·'종교적 이상을 제시하는 협녀'(『忠孝勇烈奇女傳』) 등 원작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이는清代 후기 남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이 통속소설의 작가, 생산자, 출판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통속문학이 수요가 급증하자, 성행한 인쇄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書房과 출판업계가 다양한 독자층의 각기 다른 요구에 반응 가능한 작품을 작가에게 창작토록 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작품들에는 그 자체 속에 이 작품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독자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⁴²⁾는 사르트르의 지적처럼 조선후기와清代 후기 텍스트들은 근대적 의미의 독자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독자의 요구와 이상을 반영하였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이미 수동적인 텍스트의 수용자를 넘어, 작품의 궁극적 완성을 가능케 하는 독서활동의 주체적 참여자이며 비판적 문화 권력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독서 참여자로서의 독자가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진화 및 텍스트의 제2의 창작자로서 문화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조선후기와 淸 후기 목란 형상과 주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41) 고소설 학회, 『한국 고소설의 주인공론』, 보고사, 2014.9, 261쪽 참조.

42)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 2006.7.20., ㈜살림출판사, 100쪽.

〈參考文獻〉

- 『鄭木蘭傳』, 京城 : 唯一書館, 大正5(1916).
- 張紹賢, 『北魏奇史閩孝烈傳』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강소성 사회과학원편, 울산대학출판부, 1997.9.
- 張紹賢, 『忠孝勇烈奇女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佚名, 『忠孝勇烈奇女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金采洙, 『동아시아의 문화와文學 I』, 보고사, 2001.
-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7.
- 김홍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東方文學比較研究會, 『轉移와 受容』, 學文社, 1986.
- 李學達, 『洛下生藁』, 日本, 天理大學 圖書館, 因樹屋集.
- 이민희, 『조선을 훔친 위험한 冊들』, 글항아리, 2008.
-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하)』, 일지사, 2009.
- 전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陳山 著·姜鳳求 譯, 『中國武俠史』, 東文選, 1997.
- 侯健, 『中國小說比較研究』, 台北 : 東大圖書, 1983年.
- 車溶柱, 『韓國漢文小說史』, 首爾 : 亞細亞文化, 1989.

〈논문류〉

- 박소현, 「소설중독-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독자」 『中國文學』 第53輯, 2007.
- 박송희, 「한·중 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경희대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논문, 2014.
- 이경미, 「朝鮮後期 漢文小說『劍女』를 통해 본 韓·中 女俠의 세계」 『石堂論叢』 40집, 2008.
- 임채우, 「도교의 페미니즘적 성격-도교 신화와 연단술에서의 여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韓國道教文化』 20집, 2004.
- 장시광, 「조선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독자」 『東洋古典研究』 第29輯, 2007.
- 田溶文, 「韓國 女性英雄小說의 研究」,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수경, 「淸 後期 女性들의 小說 수용에 관한 연구-題紅詩에서 《紅樓夢影》까지」 『中國小說論叢』 35집, 2011.
- Ann E. MacLaren, 이지원 옮김, 「명말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 『중국소설연구회보』, 2008.9.

全恩淑, 「比較文化視野下的中·韓愛情小說之考察 - 以清朝初年與韓國朝鮮時代的漢文作品爲主」, 國立中央大學 博士論文, 民國97(2008).

蔡亞平, 「讀者與明清通俗小說創作, 傳播的關係研究」, 暨南大學 博士論文, 2010.6.

〈英文提要〉

Mulan-its story and images- which was reproduced in popular novels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and Chung era reflected general cultural atmosphere of the age and aspect of reaction of popular reading behavior, and was a pragmatic example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readers and socio-cultural connection of literary work.

Even though Mulan contained almost same motif, it was totally reproduced and changed its internal symbolism after 18 century due to Korea and China cultural variety and expansion of reader's class. The text of Mulan story which was reproduced in Chosun dynasty as an enlightening heroine and in Chung as a beauty or transcendent female fighter showed the readers of those days transferred to proactive participants of reading activity and critical cultural authority, not as a passive recipient.

We could assure from China and Korea culture that readers as a proactive participants could take crucial position in socio-culture as a 2nd creator for social change and cultural evolution.

關鍵詞: 木蘭, 淸 후기, 조선후기, 독자문화, 남장여성, 수용과 전파, 여성영웅소설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